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문세 "네팔 학교, 지진 피해자 임시 대피소로"
가수 이문세가 자신이 네팔에 지은 학교를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로 제공했다. 이문세는 27일 SNS 통해 "네팔에 지어준 학교가 걱정되어 현지에 연락을 취해보았더니 바로 그 지역에 네 번째로 강도 높은 지진이 왔습니다. 학교 근처인 랑탕이나 그 주변이 약 70% 훼손되었습니다"라며 현지 상황을 알린 후 "안타깝기 그지없어 우리가 지은 학교를 임시 대피소로 사용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기도해주세요"라며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2004년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히말라야를 방문해 '산악음악회'를 열면서 네팔과 인연을 맺은 이문세는 당시 만난 한 아이의 꿈이 "공부"라는 말을 듣고 네팔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네팔 엔딩 드림스'를 시작했고, 2013년 배우 정준호와 함께 네팔 랑탕 지역 고산 지대에 '희망의 학교'를 세웠다.

김나영, 27일 제주도에서 깜짝 결혼식

방송인 김나영(34·사진)이 27일 오후 제주도에서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0여명만 초대해 깜짝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금음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 공개됐다. 김나영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신랑을 만났다. 김나영 소속사 측은 "김나영이 조용히 결혼식을 준비해온 터라 소속사와 지인들에게도 26일 밤에 알렸다"고 밝혔다. 김나영은 소속사를 통해 "대학시절부터 출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미래를 시작하는 첫 단추인 만큼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결혼이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나영은 신혼여행도 제주에서 보낼 예정이다.

송해 일대기 다룬 평전 '나는 판파라다' 출간

방송인 송해(사진)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 '나는 판파라다'가 송해의 89번째 생일인 27일 출간됐다. 평전은 송해의 오랜 지인으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단국대 영어영문과 오민석 교수가 썼다. 그는 1년여 동안 송해를 밀착 취재하며 평전을 집필했다. 송해는 1988년부터 28년간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고 있으며 90세를 바라보는 최고령 현역 방송인이라 사실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84세에 가수로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어 '최장수 무대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나는 판파라다'에는 송해의 인생을 통해 본 한국 근대사와 대중연예사가 담겨 있다.



최지우,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내레이션 맡아

연기자 최지우(사진)가 MBC 가정의 달 특집 2015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의 10주년 특집 내레이션을 맡았다. 최지우는 2013년 '해나의 기적' 팬으로 '사랑'과 인연을 맺었고, 10주년 특집 '10년간의 사랑' 편에서도 해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게 됐다. 이번에도 출연료를 전혀 기부하기로 했다. 최지우는 "원래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라 내레이션을 맡게 돼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내 목소리만으로 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 앞으로도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이 따뜻함, 사랑, 희망을 계속해서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랭킹 4월 27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레이븐 with NAVER	Netmarble Games Corp.
2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Corp.
3	클래시 오브 클랜	Supercell
4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Corp.
5	애니팡2 for Kakao	SUNDAYTOZ, INC
6	탑오브탱커 for Kakao	NEXON company
7	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	Netmarble Games Corp.
8	영웅 for Kakao	4:33
9	하스스톤 : 워크래프트의 영웅들	Bllizzard Ent, Inc.
10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Com2uS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어벤져스2' 캐스팅은 행운 편당 100억원 미드는 기회

(미국 드라마)

영화 '어벤져스2' 닥터 조 수현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7편 오디션 참여 함께 있던 '어벤져스2' 캐스팅 디렉터에 발탁

미드 대작 '마르코폴로' 시즌2 촬영 5월 출국 몽골 여전사로 액션 연기...출연 분량도 늘어

신데렐라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언맨'부터 '스파이더맨'까지 인기 캐릭터를 여럿 거느린 할리우드 제작사 마블스튜디오도 영화에 처음 출연한 한국배우가 되기까지, 수현(30)이 겪은 갈등은 적지 않았다. 그 갈등을 단순한 슬럼프로 여기고 제작사에 멈춰서면 세계가 열광하는 시리즈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에 출연할 기회는 잡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복수는 그만 하고 싶었다." 2013년, MBC 드라마 '7급공무원' 촬영을 마친 그는 잠시 휴란에 빠졌다. 차가운 이미지의 여성 캐릭터를 반복해 연기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이 컸다.

"제안 받는 역할이 대개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여자였다. 복수심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영화를 통해 현실적인 인물을 연기하고 싶었다. 영화에 나오는 주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다."

그때, 수현은 할리우드로 눈을 돌렸다. 물론 유년시절 미국에서 지낸 경험 덕에 쌓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떤 '확신'도, '확답'도 없었다.

"할리우드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들은 어떤 연기를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초반에는 안 될 걸 알면서도 백인 역할 오디션도 봤다. 그러다 '분노의 질주' 7편 오디션에 참여했다. 마침 그 자리에 '어벤져스2' 캐스팅 디렉터가 있었다."

기회는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난해 수현이 '어벤져스2'에 캐스팅됐을 때, 미국 빅플릭스가 제작하는 드라마 '마르코폴로'에서도 출연을 원했다. 일정 조정은 불가능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때 두 작품의 제작자 간 협의가 이뤄졌다. 양측 모두 수현의 참여를 원한 덕분이다. 수현은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며 "상당한 행운이었다"고 돌아섰다.

'어벤져스2'에서 그의 역할은 아이언맨, 토르 등 영웅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유전공학자다. 출연 비중은 적지만 이야기를 지배하는 악당 울트론의 탄생을 돕는 결정적인 인물로 영향력은 상당하다. 2020년까지 제작되는 '어벤져스' 시리즈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할리우드를 경험한 수현은 "마블 스튜디오에 다니는 특권이 있다"고 했다. "보안이 철저하다. 배우 개인의 사생활도 정확히 보호한다. 각 스타일에 맞춰 호텔, 아파트로 나눠 숙소를 배정하고 식당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더라. 무엇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선 시리즈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의 마블을 만든 것 같다."

수현은 5월 초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마르코폴로' 시즌2 촬영을 위해서다. 연말까지 몽골과 유럽 각국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한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인 '마르코폴로'는 편당 제작비가 100억원(총 10부작)에 달하는 대작이다. 시즌2에서 출연 분량을 확실히 늘린 수현은 몽골의 여전사로 나서 화려한 액션 연기도 펼친다.

"남자처럼 근육질 몸을 만들려고 한다. 요즘 운동에 빠져 있다. 마음껏 먹어 좋은 한데, 이리다 몸이 얼마나 커질지 좀 걱정이다. 하하!"

화려해 보이는 행보이지만 진짜 원하는 역할은 어찌든 소박하다. "현실에 있을 법한 여자, 일상적인 모습의 인물! 작은 독립영화가면 더 좋겠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수현은 '어벤져스2'에 이어 미국 드라마 '마르코폴로' 시즌 2에도 출연한다. 할리우드 스타로 발돋움할 것이지만 '현실'에 있을 법한 여자, 일상적인 모습의 인물을 연기하고 싶다'며 소박한 꿈을 드러낸다.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어벤져스2' 흥행 속도, 역대 외화 중 가장 빠르다

개봉 5일만에 400만 돌파...예매율 89% '국내 촬영 867억원대 경제효과'는 의문

예상을 빚나가지 않은 흥행 속도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이 역대 외화로는 가장 빠른 흥행 추이를 그리는 가운데 가수의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23일 개봉 이후 상영 첫 주말인 26일까지

1800여개관에서 344만명을 모았고 평일인 27일 400만 돌파를 앞둔 '어벤져스2'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최장 5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배급사 윌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이 기간 가족 단위 및 중장년 관객까지 끌어 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통 개봉작의 경우 상영 2주째 월요일에는 관객 하락폭이 극심하기 마련. 하지만 '어벤져스2'는 예외로, 27일 오후 2시 현재

88.6%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예매율이 줄어들지 않고 평일 오후 시간대 매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 속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폭발적인 흥행 추이와 별도로 영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4월, 보름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촬영에 따른 기대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촬영으로 867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측했지



만 실제 영화에는 서울 마포대교와 강남대로 일대를 배경 삼은 전투 장면이 약 8분 등장할 뿐 뚜렷한 인상은 남지 않는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어벤져스2'가 국내 촬영을 진행하며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30억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2200여개의 80%가 넘는 상영관을 독점한 상황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신뢰 깨진 MBC-임성한 작가... '압구정 백야' 안갯속

"계약 않겠다" "은퇴하겠다" 대립 양상 14회분 남겨 놓고 막장설·종영설 분분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가 5월15일 종영까지 14회분을 남겨 놓은 가운데 임성한 작가는 '은퇴' 선언 이후 그 전개 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구정 백야'는 방송 전 "막장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등장인물들이 개연성 없이 드라마에서 사라지는 설정 등을 비롯한 변함없는

'막장' 전개로 비판받아왔다. 방송사인 MBC마저 사실상 작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방송 도중 전해진 "더 이상 드라마 대본을 쓰지 않겠다"는 임 작가의 입장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성한 작가는 드라마 집필 중 보도된 자신의 소식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점이 MBC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다시는 (임 작가와)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한 직후여서

사실상 방송가 퇴출이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작가의 최측근이 "10번째 작품인 '압구정 백야'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계획해왔다"며 진화에 나섰다. "드라마가 초반 약속된 주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MBC 측의 입장은 작가의 자존심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대외적으로도 방송사와 작가 사이의 신뢰가 깨졌음을 드러낸 상황. 임 작가는 막바지 집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 집필 마감시간에 비교적 철저한 임 작가



의 최근 집필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압구정 백야'가 축소 종영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압구정 백야'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방송사는 물론 연기자들도 긴장 속에 대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 남은 분량이 '막장'의 집합체가 되지는 않을지 한편으로는 걱정인 것도 사실이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